

펀드매니저가 들려주는

신영주니어 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2018. 04.27. ~ 2018. 07.26.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맡아 운용하고 있는 펀드애니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펀드가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이익은 얼마나 냈는지 같이 살펴 볼까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펀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낮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자들도 투자하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우리펀드는 갖고 있던 금융, 유통, 철강업종 내의 주식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네요.

최근 3개월간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러한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미 그러한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적들이 더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인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결국 주가는 실적이 좋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펀드는 최근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철강, 조선 관련 기업 주식들을 늘려나갈 것이예요.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야 주가에 실적이 반영될 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을테니까요. 수출이 늘어가는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등의 업종 내의 종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랍니다.

펀드 성적을 살펴 볼까요~!

<주니어경제박사 수익률 및 펀드 규모> 기준일 : 2018. 07. 26.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7.12%

최근 3개월 수익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2018. 04. 27. ~ 2018. 07. 26.) -7.12%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이 -6.75%인 것에 비하면 0.37%pt만큼 낮습니다.

최근 5년 수익률

+43.44%

비교지수 : +19.08%

비교지수대비 : +24.36%pt

최근 3년 수익률

+23.29%

비교지수 : +11.35%

비교지수대비 : +11.94%pt

최근 1년 수익률

-1.53%

비교지수 : -5.18%

비교지수대비 : +3.65%pt

26,840 백만원

순자산 총액

-6.32%pt ↓

증감률

주니어경제박사 펀드 투자 바구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순자산 총액이에요.

순자산 총액이 3개월 전 보다 -6.32%pt 줄었어요.

* 증감률이란? 우리 펀드가 3개월 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말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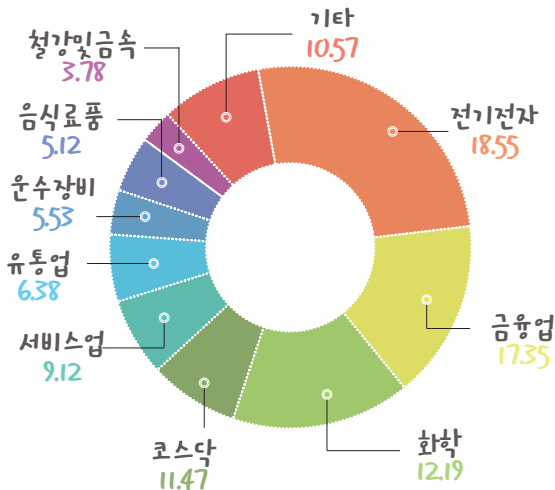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고 있을까요?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에는 주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펀드매니저가 여러 회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평가하여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회사를 신중하게 골라내어 우리 펀드의 투자바구니 안에 담았어요.

우리 투자 바구니 안에는 어떤 주식이 있을까요?

<업종별 투자비중>



<주요 투자 종목>

(기준일: 2018. 04.26., 단위: %)

1위	삼성전자	13.81	6위	한국가스공사	1.83
2위	LS	3.87	7위	SK케미칼	1.81
3위	CJENM	2.30	8위	SK	1.77
4위	SK이노베이션	1.91	9위	LG화학	1.76
5위	LS산전	1.85	10위	KCC	1.68

2018년 7월 26일 기준으로 주니어경제박사 펀드는 전기전자업종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지난 번엔 금융업종이 높았는데 이번엔 상대적으로 전기전자업종 비중이 더 많아졌네요. 종목은 지난번과 같이 삼성전자, LS와같은 종목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고 있어요. CJ ENM과 같은 콘텐츠 기업이 10위권 안으로 새롭게 들어왔다는 특징도 있네요.

신영주니어경제박사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신영자산운용

www.syfund.co.kr

<주니어경제박사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나요?>



CJ ENM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를 제작, 배급하고 해외에 수출하여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 및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이지요.



SK케미칼

화학 및 생명과학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페트병 등에 사용되는 PET수지 등을 만들면서 석유화학계에 필요한 기초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부에서는 각종 치료제 및 독감백신 등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투자자산매매내역을 알아보나요?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기준일: 2018. 07. 26.

(단위: 백만원, %)

매수	
수량	금액
179,036	6,612

매도	
수량	금액
204,620	6,151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
22.39	89.82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2017.10.27 ~ 2018.01.26
14.69%

2018.01.27 ~ 2018.04.26
20.53%

2018.04.27 ~ 2018.07.26
22.39%

주니어경제박사의 경제열전 - 미국의 금리인상 이야기

여러분은 최근 뉴스에서 '금리인상'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리는 이자율을 뜻하는데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을 뜻한답니다. '금리인상'은 이자율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요. 그렇다면 이자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랍니다. 이전에 말했듯이 글로벌 경제시스템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고, 공통화폐인 달러를 가진 미국은 더욱 영향력이 강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미국금리인상이 국내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까요?

금리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율이라고 했어요. 하준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 이자를 내지 않으려고 하면 은행은 하준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에요. 반대로 하준이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저축을 하기로 했는데 은행이 하준이에게 이자를 주지 않으면 하준이도 굳이 은행에 돈을 주고 싶지 않겠지요. 그만큼 '금리'는 돈이 이동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답니다. 돈은 이자를 적게 주는 곳보다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고 싶겠지요. 우리가 이자를 작게 주는 은행보다 많이 주는 은행에 저축하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자본은 금리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기본 섭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본은 한국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돈이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유출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자본들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하며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겠지요?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우리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미국 달러의 인기가 많아져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돈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달러환율이 상승하게 되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입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자본의 흐름과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해하셨죠? 과거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덩달아 올리기도 했답니다.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이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이처럼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니어경제박사 여러분은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때 어떤 투자결정을 해야할지 고민해보기로 해요.

증권 투자신탁(주식)의 펀드운용 이야기

우리 펀드의 운용 (부모님께)

신영주니어경제박사증권(주식)의 3개월 수익률은 -7.12%로 비교지수 -6.75% 대비 0.37%pt 하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KOSPI 90.0% + CD91 10.0%)

<운용경과>

KOSPI가 하락하며 펀드가 보유한 기업의 주가도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절대적으로는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펀드가 보유한 가치주의 반등과 시장 대비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비금속광물, 섬유 의복 등 업종이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펀드가 보유한 금융, 유통, 철강 등 업종과 지주사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비교지수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달러강세 및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한 신흥국 유동성 위축 우려, 북한과의 정치적 이벤트 등 대외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월 들어 미국 외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KOSPI는 급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불안정한 대외변수로 금융업종, 실적 부진 우려로 유통업, 운수장비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및 북한과의 경제협력 기대감으로 비금속광물, 건설업 등 업종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실적 안정성이 부각된 통신, 섬유 의복 등 업종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기간 동안 펀드는 KOSPI의 상승에도 주가 소외로 청산가치 대비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대형 우량주와 향후 2~3년 사이에 기업가치 상승이 진행될 업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장가치가 있는 중소형주의 편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

향후 주식시장은 제한적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은 주가와 환율에 어느 정도 반영된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전년 대비 기업 실적의 절대적인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 코스피의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최근의 주가 하락으로 KOSPI의 저평가 매력은 더욱 높아진 상태로 상반기 부진했던 유럽의 경기지표와 신흥국 경기지표 반등 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달러 강세의 완화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며 코스피 지수의 반등도 기대됩니다. 대외변수가 비우호적인 가운데 경기와 기업이익의 증가율 둔화 및 금리상승기를 감안 시 전반적인 시장상승, 업종별 순환매보다는 기업 본질의 경쟁력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며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더욱 옥석가리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평가된 기업, 구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펀드의 보유종목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하여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경기민감 업종 중 철강, 조선 업체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며 환율 및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실적 개선세에 따라 차별화 될 종목,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 발굴 및 저가 편입에 집중하여 펀드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